

■ 2017년도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지원 심의 총평

창작뮤지컬분야

○ 일시 및 장소

- (1차 서류) 2017. 1. 20(금) 10:00~14:00 /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
- (2차 PT 및 인터뷰) 2017. 2. 9(목) 15:00~17:00 /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

○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김재성, 박인선, 변희석, 정수연, 정인석, 조형준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도 창작 뮤지컬 해외공동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각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. 이 지원 사업은 우리 한국뮤지컬이 해외에서 공연되어지며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, 국위선양의 국가대표이며 나아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기에 심사를 하면서도 심의위원들 모두가 하나라도 놓칠까 신중하게 검토하며, 문제점 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여건의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 심사숙고 하였다.

모든 단체의 작품들에 다 기회를 드리고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외 공동제작이라는 타이틀처럼, 선별 과정을 통해 그 의의와 중요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. 과연 이 작품이 한국 뮤지컬을 대표할 수 있을지, 또한 실연 가능성과 열의는 어느 정도일지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판단 근거는 제출하신 서류들과 자료들로 가늠하였다.

우선 1차심의를 통해 6개의 지원작을 검토하였다.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지, 무대 공연으로서의 작품성은 어느 정도인지, 시나리오의 창의성과 연출진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일지, 출연진과 준비사항들은 잘 구성되었는지, 홍보계획이나 제작 일정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지, 또한 해외 공연 제작팀과의 계약관계나 제작일정 등은 사실적이며 구체적인지 등을 검토하였다.

물론 이번 해외공연이 첫 공연이든 재공연이든 차등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였으며, 이런 심의 기준으로 2017년 1월 20일, 1차심사를 한 결과, 작품의 구성이나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본, 악보 등의 기본 심의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실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계약서 등이 없는 공연들을 제외한 3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.

이렇게 1차 선정된 3개의 작품을 2017년 2월 9일, 2차 심의를 하였다. 각 단체의 PT와 질의 응답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심의를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다. 공연 일정은 정확하게 계획되었는지, 해외공연 대상국가의 단체와는 공동제작 여건이 어떠한지,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은 어느 정도까지 구성 되었는지, 또 공연 일정이 정해진 해외 극장과의 계약서나 이에 상응할만한 서류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.

그 결과 해외공연에 대한 제작 여건이 불분명한 작품이나, 이미 공연되었던 작품이고 서류는 제출이 되었지만 실제 해외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일정과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좀 불투명한 작품들이 검증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작품만 선정하게 되었다.

선정된 단체의 해외공연이 모든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시기를 바라며 지원하신 모든 단체들에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.

심의위원 일동